

새날가정에배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4:24)

목도	시편 145:18-19	사회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550장(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같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사회자

16.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17.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20. 그들이 숙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설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	
찬송	384장(나의 갈길 다가도록)

1.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기도문



즐거운 명절이지만, 그럼에도
즐겁지 못한 소외된 이웃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작게라도 함께 나누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 늘은 즐거운 설날입니다. 설날은 추석과 더불어 최대 명절 중 하나로, 음력 정월 초하루, 즉 1월 1일입니다. 2025년 설날을 맞이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해에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감으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북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4,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홍해의 광야 길’로 훨씬 멀뿐 아니라 광야이기에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길을 아시면서도 멀리 돌아가는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길에는 호전적인 블레셋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나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록 멀어도 그들에게 적합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가는 길에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앞서가셨을까요? 앞에 가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찾아주시고 또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항상 앞서가며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뒤따르는 삶이란,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적절하게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안내하였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낮 시간에 구름은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둡고 추운 광야에서 불기둥은 어둠을 밝혀주었고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당한 것을 공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죽고 그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시 48:14)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분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며 뒤따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순서지

